

“1시 방향의 저글링때”展

아르코미술관 전문가성장 프로그램 게릴라전시 기획



보 도 자 료

[총 6 매, 세부자료 붙임, 전시사진 별첨]

배포 : 2012 년 1 월 26 일(목)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아르코미술관 홍보담당 이수령 02-760-4605 / sue@arko.or.kr

인사미술공간 코디네이터 이재혁 010-7325-0206 / leejh@arko.or.kr

독립큐레이터 김아미 010-4435-1228 / mul-pu-re@hanmail.net

인사미술공간 2012 년 첫 전시, “1 시 방향의 저글링떼” 展 개최

아르코미술관, 2011 년 하반기 전문가 성장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진작가, 독립큐레이터들의 성과보고전으로 2012년 전시 시작

신진 작가, 신진 큐레이터들의 눈을 통해 현실 속 다양한 이미지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개최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광수, 이하 ARKO)는 아르코미술관의 2011년 하반기 전문가 성장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신진 작가, 독립 큐레이터들의 결과 보고 전시회를 오는 2월 8일(수)부터 25일(토)까지 원서동 인사미술공간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아르코미술관의 2011년 하반기 전문가 성장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는 전시로, 본 프로그램 강사이기도 했던 독립 큐레이터 류병학씨와 3명의 신진 기획자 및 19명의 신진 작가가 함께 기획하였다.

□ 1 시 방향의 저글링떼?

다소 생소한 이번 전시명인 ‘저글링떼’는 스타 크래프트(Star Craft) 게임에서 ‘저글링이라는 종족이 집단으로 공격한다’는 뜻으로, 여기에는 4인방 신진 큐레이터들이 멀티플레이로 기획하는 전시라는 의미 외에도, “관람객들이 1시

방향에서 저글링떼처럼 (구름같이) 몰려들기”를 바라는 기획자들과 참여 작가들의 기대감이 녹아 있는 타이틀이다. 총 19명의 신진작가가 참여한 ‘1시 방향의 저글링떼’ 전시는 사진, 회화, 설치, 영상 등 총 00여점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 작품을 파괴하는 전시?

한편, “저글링떼처럼 몰려들어 공격한다”는 이번 전시 제목의 의미는 기획자들과 참여 작가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문구이기도 하다. 기획자들은 급진적인 전시 기획과 공격적인 작품 판매를 통해 전시 작품들이 모두 판매되는 것을 목표로 하나, 전시 마지막 날까지 작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시 마지막 날 작품 파괴를 할 것을 선언하였다. 참여 작가들 또한 기획자들의 요청에 따라 전시 종료 시까지 판매되지 않은 작품은 모두 파괴할 것에 동의하였다.

□ 불우이웃이 불우이웃을 돕는다?

이러한 기획자들과 작가들의 강력한 행동 강령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현대미술을 하며 살아가는 일이 그 만큼 수월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역설이기도 하다. 신진작가들은 자신들이 현대미술을 한다는 것이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격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저글링떼” 참여 작가들은 작품 판매 금액 전액을 불우 아동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나섰다. 흔히 IMF 경제 위기를 해마다 겪고 있다고 하는 신진작가들이 오히려 불우이웃을 돕겠다고 나선 셈이다.

※ 아르코미술관은 신진 작가 및 큐레이터를 대상으로 창의력 확장 및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예술과 인접 학문의 최신 이슈를 반영한 특강, 경력 관리에 필요한 크리틱 과정을 병행하는 “전문가 성장프로그램”을 매년 상, 하반기 2회씩 12주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 붙임 자료

1. 전시 개요
2. 기자간담회 안내
3. 참여작가 및 기획자 “선언문”
4. 참여작가 대표작품 소개

2012년 인사미술공간 첫 전시 “1시 방향의 저글링떼”

1. 행사 개요

- 전시명 : “1시 방향의 저글링떼” 展
작전명 :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Operation : Can't Wait Any Longer
- 전시장소 : 인사미술공간 (지하, 1층, 2층)
- 전시기간 : 2012년 2월 8일(수) ~ 2월 25일(토)
- 전시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 공동기획 : 김아미, 도종준, 류병학, 이가은
- 홍보담당 : 김아미
- 참여작가 : 리치빈, 미하일 진 호프만, 보라리, 서재정
안경희, 양명진, 유목연, 오세라, 이 림, 이민경
이윤성, 이자영, 이진영, 자우녕, 정현명, 조현익
지연오, 최종희, 한경희 (총 19명)

2. 기자간담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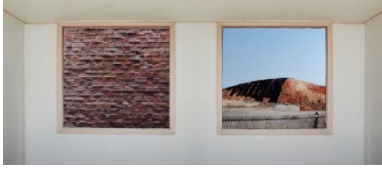







- 일시 : 2012년 2월 6일(월) 오후 4:00—오후 5:30
- 장소 : 인사미술공간
- 식순 : 16:00 - 16:10 인사말 (아르코미술관 관장 이한신)
16:10 - 16:30 전시기획 설명 (큐레이터 김아미, 도종준, 이가은)
16:30 - 17:00 전시관람
17:00 - 17:30 질의응답


3. “1 시 방향의 저글링떼” 선언문

“불특정다수 대중은 마치 스타크래프트의 저글링처럼 젊은 예술가들에게 맹목적인 공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급진적인 전시기획을 통해 아티스트의 태도를 대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저희는 대중의 저글링 러쉬를 효과적으로 역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그 역공의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결단을 선언합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작품판매를 통해 판매금 전액을 불우아동 돕기에 기부합니다. 다른 하나는 판매되지 않는 작품을 파기하기로 선언합니다. 작품파기 선언은 전략적 관객 모독으로 공격적 작품 판매를 통해 작품이 전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참여작가 19 인과 공동기획자들)

4. 참여 작가(21 명) 대표작품 소개

※ 작품 이미지 다운로드: www.webhard.co.kr / ID: bolian / Password: 0208		
리치빈	미하일 진 호프만	보라리
		
PPG 09, 73x91, oil on canvas, 2011	a place, 20.32x30.48, c-pirint, 2010	Bora201003, 600x450x360, polyester and wire, 2010
서재정	최종희	안경희
		
ILLUSORY_B, 162.2x130.3, Oil on canvas, 2011	Mirror in the mirror, 100 x100, acrylic mirror, FRP, steel. 2010	concise dictionary #2, 100x150, Archive pigment print on fineart paper,2010
양명진	유목연	오세라

		
<p>Untitled(부분), 60.6x60.6, 캔버스에 미디어, 클레이, 찰흙, 수수깡, 석고, 색종이, 스티커, 2011</p>	<p>serise4 "wall" 110x110, hand printed by C- print, 2011</p>	<p>Cookie and Cream is Sold Out, 90.9x60.6, Oil on canvas, 2010</p>
<p>이림</p>	<p>이민경</p>	<p>이윤성</p>
		
<p>Beyond Max Ernst(penis envy), 100 x 80, archival pigment print, 2011</p>	<p>The Temporary Isle_two windows, 130x56, Archival inkjet print, 2012</p>	<p>between A and C, 90.9x60.6, acrylic on canvas, 2011</p>
<p>이자영</p>	<p>이진영</p>	<p>자우녕</p>
		
<p>1.1 fortissimo, 332x130, oil on canvas. 2010</p>	<p>The Temporary Isle_two windows, 130x56, Archival inkjet print, 2012</p>	<p>유랑하다, 5min, 비디오, 2008</p>
<p>한경희</p>	<p>정현명</p>	<p>조현익</p>
		

늑대가달아났다, 100x147, 종이에 채색 2010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11x14 inch, C- Print, 2010	Ophelia(Flash-S-110896), 244x366, 부식된 철판에 스크래치 및 혼합재료, 나무패널, 우레탄페인트, 2011
지연오		
		
Mystery Circle 02, 100x100, oil on canvas, 2011		

<관람 안내>

1. 관람시간 : 화~일 11:00~19:00 (※ 매주 월요일 휴관)
2. 관 람 료 : 무료
3. 전시장소 : 인사미술공간 (110-280 서울 종로구 원서동 90 번지)
4. 오시는길 : 지하철 3호선 안국역하차 3번 출구 (현대빌딩 방향)

(※ 주차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세요)



5. 관람문의 : Tel) 02-760-4722 / Fax) 02-760-4725

※ 기타 전시 관련 문의

독립 큐레이터 김아미 : 010-4435-1228 / mul-pu-re@hanmail.net